시 론

문고리 권력과 간신배 이야기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온통 나라가 충격적인 폭로로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에 휩싸여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야당의 특검법을 거부하고 의혹 규명보다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면서 속임수 브리핑으로 국민들의 의혹만 더 키우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언론들도 지금 상황이 탄핵 파면된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을 좌지우지한 '문고리 3인방'처럼 '한남동 라인 8인방'이 환생한 것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직무수행 평가가 거의 바닥세로 국정이 폭망한 정권이라고 질타한다. 이런 와중에 경제는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와 강달러로 이어지고 세수 펑크로 재정지출의 여력이 없어 내수 회복속도도 더디고 수출도 감소세로 전망이 흐리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작년 11조원 적자로 52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국제 정세는 미국 대선의 향배와 북·러 조약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큰 부담과 안보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는 임기 동안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묻지 못해 문고리 권력이 활동하기 손쉬운 생태계를 마련해 줘 독선적이고 부패한 정권으로 타락할 수 있다. 반면에 의원내각제는 의회에 내각 불신임권, 내각에 의회 해산권이 주어져 총리와 각료, 의원들의 임기가 불안정해 당내 역학관계로 인해 파벌과 계파가 나타나 정략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역사상 어느 시대나 국가에서도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세력들이 등장해 국가를 망치고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다. 문고리 권력은 군주를 알현하거나 최고 지도자를 대면하도록 문고리를 열어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공식적 라인으로 군주나 최고 통치자의 무능함을 감추고 결국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간신배로 국정을 농락했다. 대표적인 문고리 권력은 중국 후한 말 영제 때 10명의 중상시(中常侍)인 환관들로 실질적 권력을 휘두르고 왕권을 농락한 십상시(十常侍)이다. 중국 왕조 역사에서 문고리 간신배 부류는 재상부터 환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에서 존재했다. 간신배는 춘추시대 제(齊)나라 환공 시기의 역아(易牙)와 초(楚)나라 평왕(平王)과 소왕(昭王) 시기의 비무극(費無極)으로부터 진(秦)제국의 조고, 당나라 현종 시기의 양국충, 송나라의 매국노 진회, 명나라의 엄숭과 위충현 등으로 비참한 말로(末路)를 맞이했지만 현재도 새로운 유형으로 다시 등장하는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의 측근들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는 간신배를 경계하고 제거하려고 통치자의 경각심을 깨우치고자 하는 기록들이 있어왔다. 르네상스 시대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제22장 군주의 측근들에 대해서)'에서 군주가 현명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측근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측근들이 능력이 없어 맹목적이면 군주의 선택은 잘못된 것으로 군주가 무능하다"고 힘줘 강조했다. 순자(荀子)의 유좌(宥坐)편은 공자가 노나라 재상 시절에 음험한 자, 사기성을 지닌 자, 거짓말하는 자, 나쁜 것만 기억하면서 박식한 자, 비리를 저지르면서 사익만을 취한 자로 다섯 가지 유형을 지니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간신 소정묘(少正卯)를 처형시켰다고 기록했다. 한비(韓非)도 '내저설하편(內儲說下篇)'에서 통치자가 경계해야 할 일을 6미(微)라 하고 "일왈(一曰) 권차재하(權借在下) 이왈(二曰) 이이외차(利異外借) 삼왈(三曰) 탁어사류(託於似類) 사왈(四曰) 이해유반(利害有反) 오왈(五曰) 참의내쟁(參疑內爭) 육왈(六曰) 적국폐치(敵國廢置) 차륙자(此六者) 주지소찰야(主之所察也)"라고 열거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섯 가지 모략은 첫째 가족이나 측근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 둘째 외세의 힘에 의존하는 것, 셋째 조작과 거짓말을 하는 것, 넷째 국익을 훼손시키면서 계파의 이익을 취하는 것, 다섯째 참과 거짓이 혼돈할 때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것, 여섯째 이웃 나라의 간섭으로 관료를 임명하거나 파면하는 것으로 최고 통치자가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민들은 문고리 권력을 행사한 간신배를 처단하는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지만 반드시 사법적 판결로 응징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대와 나라에 상관없이 문고리 간신배가 활개를 칠 수 있는 정치적 토양을 없애기 위해 권력분립의 견제장치와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이제 권력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이 심판하는 민심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社 說

정작 광주 시민들도 잘 모른다는 '대자보 도시' 정책

민선 8기 광주시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지도는 현저히 떨어진 현실이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한국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18-29세 67.7%, 30대 74.3%에 달했다. 찬반 의견을 묻는 질문엔 56.9%가 찬성했고, 반대는 10.2%, 잘 모름은 33%였다.

광주시는 2026년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에 발맞춰 대중교통 시스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광천권역 특별교통대책으론 도시철도 상무광천선과 BRT(간선급행버스) 개통, 도심급행버스와 구도심 연결 상생버스 신설, 광주천 상부 에코브릿지와 그린로드 조성 등을 진행한다. 이 일대는 버스종합터미널, 광천재개발, 신세계백화점 확장, 더현대광주 개점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대자보 도시 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중앙부처와 국회는 물론 유관기관과 협력해 세부 계획을 철저히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착실히 마무리,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층에 속하는 만큼 대학생들과 현장 대화를 이어가는 등 의견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적으로 도로 다이어트에 대해 53.7%가 찬성했지만 반대가 23.0%로 도로 축소나 차량 흐름 변화로 인해 불편을 겪으며 정책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복합쇼핑몰 이용 시 교통수단으로도 승용차가 64.4%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자보 도시는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광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 구상이다.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계기로 기후 재난을 극복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새로운 실험이다. 2030년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목표다. 마땅히 시민 여론을 수렴해 적극 공감하고 지지받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광주시가 시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고부가 전남산 김 경쟁력 강화 기간산업으로 육성을

전남도가 서울에서 연 2024 세계 김밥페스티벌은 전국 소비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주 산지로서 김 산업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최근 미식 강국인 프랑스의 K-SOCIETY 매거진에도 소개돼 화제에 오르는 등 전남산 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내·외국인 21만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룬 축제에서 전남산 김과 김밥, 김부각, 김스낵 등 김 제품이 주목받았다. 전남의 농수산물을 활용한 김밥 10여 종을 장성의 현대푸드시스템에서 생산해 방문객에게 시식한 결과, 호응도가 높았다. 김 역사 전시관, 아트김밥·김 뜨기 체험관, 수산물 홍보·판매관도 북적였다. 전남도는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종자 개발, 마른 김 품질 관리제, 대규모 전용 물류시설 확충 등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전력하고 있다.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기는 식품이다. 국민 반찬의 명성을 넘어 세계의 식탁에 올랐다. 칼슘과 칼륨,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면서 아삭한 식감, 깊은 맛으로 사랑받고 있다. 특히 건강 만점 먹거리로서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를 이뤄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 한국의 고유 해산물 문화로 높이 평가받는다.

최근 10년 간 연평균 8% 수준으로 고속 성장한 김은 지난해 농수산식품 역사상 단일품목 수출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올해도 지난 9월 1조원을 돌파했다. 전남지역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2억 7천511만 달러로 42.2%나 뛰었다. 수출 국가도 124개 국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생산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이미 국내 시장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역설적 상황이다.

K-푸드 열풍 속에 전남산 김이 고공행진 중이다. 이번 축제 성과가 상당하다.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트롤타워인 국립 김산업진흥원 설립의 당위성도 입증했다. 청정 환경에서 자란 김의 안정적 생산과 지속적인 우수성 홍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 지원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더 집중해야 한다.

기 고

노년의 건강한 삶의 제언

권 영 복

이제 근력과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 특별히 불편하거나 또 필자의 나이쯤되면 갖게되는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에도 아직은 자유로운 상태이다. 다만 몸이 아프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도 아니지만 날로 약해져가는 근육과 체력은 세월을 초월할 수 없어 한계가 있음을 실감한다.

칠십 중반을 넘기는 중이고, 1% 미만 100년을 사는 복받은 체질은 아니라고 생각돼 이제껏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하고, 별 특별하달 것도 없는 일상이 불편한 것 정도는 당연하고 또 의당 그러려니 생각이 미치니 한결 가벼워지기도 한다.

또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과 판단력, 사물을 보는 시각이 쇠해지고, 지인과 친구들과의 소통도 많이 소원해졌다. 이제 해를 넘길 때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빠르고 더 넓게 다가올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다.

나이드니 좋은 것들도 생겨났다. 아들, 딸에 대한 양육 의무 모두 마쳤으니 금전적 힘듦과 삶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됐고, 눈이 시리도록 귀엽게 커가는 손주들을 보면서 기대와 사랑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음도 즐겁고 감사한 일이다.

칠십 여년을 살아오는 동안 나름 열심을 내었고 풍족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느끼며 그렇게 지낸 삶이었지만 크게 힘에 겨웁거나 비관의 삶을 산 것은 아니었으니 이 또한 감사할 일이다.

요즈음 지인과 친구들이 보낸 카톡엔 대부분이 나이듦의 어려움에서 해탈하기와 건강에 대한 정보로 도배된다. 연배가 같거나 별차이 나지 않으면 생각들이 모두가 50보에서 100보이고 비슷할 터라 나와 같은 마음으로 건강에 대해 염려하는 모습들이 십분 공감이 된다.

첨단 AI시대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를 꼰대, 구시대의 사람들로 여긴다. 당연한 일이다. 시대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연령에 도착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우리들도 능숙은 아닐지라도 시늉은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는 SNS를 통한 사회적 소통에 능숙함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함께 교류 할 수 있는 수준은 이르렀기에 나 스스로 감사하며 안위 한다.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윤택함 때문인지 예전에 비해 이 시대 나이든 노인들은 건강한 편이고 움직이는 활동 반경도 넓고 커보인다. 등산과 걷기를 게을리 하지 않고 건강을 다지는데도 열을 내고 있다.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다.

70에 들어설 무렵 알게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기쁘다. 또 목요일마다 만나 산행과 트레킹으로 체력을 다지고, 일상적 교류에서 삶의 의욕과 위안을 받는 네 분의 친한 동료가 내게 있다. 이것이 필자로서는 즐겁고 자랑하고 싶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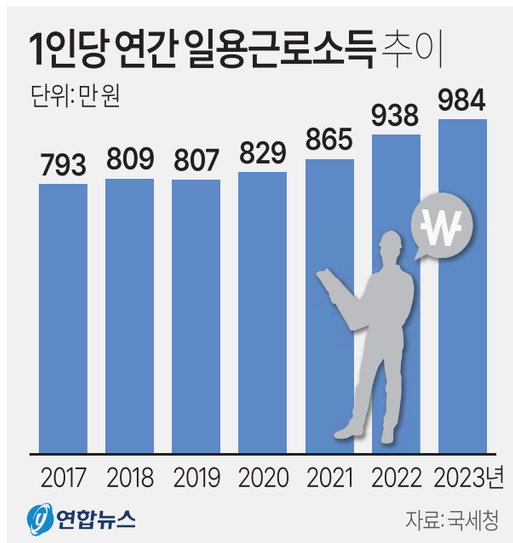
하늘이 높아져 보이는 상쾌한 가을날, 좋은 친구들과 무등산을 다녀 왔다. 함께한 그곳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산과 하늘과 구름에 매료됐고, 그 모습들을 사진 몇 컷으로 가져와 함께 간직하면서 무르익은 가을과 화려한 단풍이 곧 찬란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들이 변하지 않는 이때가 참 좋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쌍용예가 아파트〉

그래픽 뉴스

일용근로소득 지난해 1인당 연간 984만원…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일용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재원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자진 신고하게 하고, 사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지만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보험료 부과 소득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를 보면 건보료 부과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인데, 여기서 근로소득에는 일용근로소득도 포함된다.

과거 일용근로소득은 가난한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서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전반적으로 올랐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근로소득 수준은 2021년 865만원, 2022년 938만원, 2023년 984만원으로 지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유해야생동물 구제용 총기 안전 관리 중요

최근 유해야생동물 구제용 총기 오발로 인한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을, 겨울로 계절이 바뀜에 따라 농작물과 묘지 훼손 등 주민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엽사들의 활동도 잦아들고 있어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수렵 총기 사용 허가는 지자체 소관이지만 수렵 총기 관련 및 보관 등은 관할 경찰서로 업무가 분리돼 있다.

2024년 10월 말 현재 고흥군에는 39명이 유해야생동물 구제로 인한 수렵허가를 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중 11명은 야간에만 전문적으로 수렵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흥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에서도 관련 수렵 대상자들에게 총기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수칙 준수 강조, 총기 출고와 입고 절차, 시간 준수 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기 마련이므로 다음과 같은 수렵인들의 안전 수칙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총기 출입고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출고시 행선지(사용지역)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둘째 총기 사용 전에 전방에 민가나 동료 엽사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인가(人家)와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는 사용 금지 장소이며 사용 시에도 포획을 허가받은 자는 미리 식별하기 쉬운 복장을 갖추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총기 사용 시에는 허가지역 외에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휴식할 때는 실탄을 반드시 분리하고 안전장치는 잠금장치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총기 사용 후에는 실탄을 제거하고 약실을 확인하는 등 반드시 확인하고 입고해야 한다.

다섯째 위와 같은 유해 동물 구제를 위한 수렵활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파출소(지구대)에서는 총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 방송과 주민 홍보 등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수렵인의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와 문안 순찰을 통한 주민 안전사고예방 홍보를 통해 수렵 총기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조현기·고흥경찰서 영남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 장 馬亨列 사 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가10(日刊)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